

지역 소식통

정읍시민장학재단, 내년부터 지역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정읍시 지역어르신에 육성사업이 2025년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방향으로 새롭게 바뀐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내년부터 평생학습관(총정로 93)에서 중학교 2~3학년은 학년별 20명, 고등학교 1~3학년은 학년별 40명을 선발해 주말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교과목 심화학습과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발은 오는 12월 중 교과수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선발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고등학생들을 위해 논술, 대입 면접, 진학 상담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입 준비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우수한 대학 진학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본격 김장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정읍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20~2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김장 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은 냉동꽂지,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열장새우 등이다. 이들 품목은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힌다.

시는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노점상 등 약 30곳에서 점검을 진행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표시판을 배부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농산물 온라인 판촉 '맞손'

정읍시-정읍우체국, 우체국 쇼핑 플랫폼 활용 통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와 정읍우체국(국장 정영환)은 18일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정읍우체국과 함께 우체국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판촉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2022년부터 우리쌀 소비 촉진 기획전 등 온라인 프로모션에 협력 예산을 지원하며, 농특산물 판매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2022년에는 20억원, 2023년에는 3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10월 말 기준 24억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정읍시와 정읍우체국은 18일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우체국과의 협력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판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다.

정영환 우체국장은 "정읍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 행정사무감사 실시

총무과·문화예술과·관광과 등 대상 예리한 질문 이어져



지난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지난 13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등의 부서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김석환 위원장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한 축제의 확대 및 홍보를 주문하였고, 행사·축제의 원가 회계정보 미공개 등 지방재정립 미준수 상황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오승현 부위원장은 공직사회를 떠나는 MZ세대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함께 젊은이들이 조직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범 위원은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축제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김천김밥축제, 공주페스티벌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축제 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형 위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중징계 처분 공무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징계처분지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황해숙 위원은 무보직 공무원의 직렬별 배치 기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직군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형평성을 원칙으로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재 위원은 큰 사업비로 조성한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에 대하여 탑승객의 불편 사항을 보완 해줄 것과 단종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장기적인 활용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한선미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조사·벤치마킹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고성환 위원은 인구소멸 대응을 담당하던 인구정책팀의 타 부서 통합에 대하여 정읍시의 지방소멸에 대한 관심 부족 사례로 강하게 지적하며, 향후 조직 개편 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는 21일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일본 방문단, 고창고인돌 마라톤 대회 참가

고창군·고치현 시만토정, 다양한 분야 활발한 교류 지속

고창군과 우호교류협약을 맺은 일본 고치현 시만토정(四方十町) 방문단이 지난 16~17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고창군을 공식 방문했다.

모리다케시 시만토정 부시장과 미모토가즈요시 시만토정의회 의장 등 13명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제22회 고창고인돌마라톤에 참가했다. 또 구보카와 고교와 영선고교 간 청소년 외교관 활동 교류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고창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상황과 고창소방서의 각종 소방차량, 장비등을 견학하여 소방출동체

계 공유 등 양국 소방에 대한 교류의 장이 되었다.

고창군과 일본 시만토정은 2012년부터 국제 우호협약을 체결 이후 상호 대표축제 방문, 관광지 연계 홍보, 청소년 외교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양도시의 우호협력관계가 상호 존중과 신뢰속에 더욱 발전하고 행정적인 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활발하게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로컬푸드 활용한 제품 판매행사 성황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밀거름학교 교육생 10명 참여

부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4일 밀거름학교 '로컬푸드 활용 창업아이템 개발 및 창업자 양성과정'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음날인 15일 부안군청 앞에서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현장 판매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안군 내 로컬푸드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개발과 실천 창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프로그램



로컬푸드. 총 1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였으며, 5주간 배신상생강대추청, 옥수수크림 바스크 케이크, 땅콩쿠키 등 다양한 제품의 실습이 진행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장, 겨울철 결빙사고 대책 마련 지시

시민 편의 위한 적극행정 강조

이학수 정읍시장은 18일 간부 영상회의를 갖고 겨울철 대비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과 대책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읍면동별 상시 결빙구간을 점검하고 재난안전과와 협의해 겨울철 결빙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서 간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시민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모든 부서장이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모든 직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행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